

본질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



천세봉 목사는 송실대학교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 ACTS 신학대학원(M.M.)에서 수학했다.
이후 화평교회와 싱가포르 나눔과섬김의교회, 서대문교회에서 섬겼다.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목(巨木)으로 세우는 일에 목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능곡중앙교회 담임목사와 경기지역 CAL-NET 총무로 섬기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뿌리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교회 전통을 인정하면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정착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만큼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이지만, 결코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장의 소리를 여러 채널을 통해 듣게 된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는 인내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능곡에 전통 교회라는 토양 위에서 제자훈련을 바탕으로 가정교회를 알차게 세워 가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게 됐다.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마음을 설레게 했고, 교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들린 청년들의 웃음소리에서 교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허물없이 맞아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능곡중앙교회 담임인 천세봉 목사였다. 능곡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횡수로 7년째를 맞이하는 그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켜, 건강한 중형 교회로 세워 가고 있는 40대 젊은 목사다.

지금까지 8기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훈련생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그는 한 사람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묵묵히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능곡중앙교회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본보기이며,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뿌리내려, 가정교회라는 역동적인 모델을 통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천세봉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믿음으로 준비한 목회자의 길

천세봉 목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원로장으로, 어머니는 권사로 은퇴하셨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생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을 소원했다. 그 마음은 변함없이 학창 시절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서 그는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목회할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진로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고민 끝에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천 목사는 학창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이 같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목회자가 된 후 중세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중세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더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말한다.

이처럼 천 목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목회자의 길 외에는 다른 데 한눈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했다. 천 목사는 학부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신대원에 입학했다. 신대원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했다. 그가 섬겼던 첫 사역지는 잠실소망교회였는데, 당시 담임목사님을 통해 인격적인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의 기억에 남는 사역은 주일 오후에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나사로 형제들)이었다. 당시 잠실소망교회는 구제와 이웃사랑을 행하며 많은 섬김을 실천했는데,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이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믿음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사역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회 인생에서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만남을 경험한다. 바로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믿음교회 사역 이후 사역지를 화평교회로 옮겼다. 천 목사는 최상태 목사와의 만남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다고 강조한다.

“최상태 목사님은 저에게 멘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과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 목사의 고백처럼 최상태 목사와의 만남은 천 목사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 이후 싱가포르에 있는 나눔과섬김의교회에 있으면서 해외 교회에서도 제자훈련과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정착하는 것을 2년 동안 경험하게 됐고, 이후 서대문교회에서 장봉생 목사를 통해 목회자 리더십과 전통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천 목사는 자신의 목회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했다. 때에 따른 은혜와 인도하



천 목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능곡중앙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새가족반을 인도했다. 새가족반이 정착하자 2009년 양육반을 시작했고, 이후 2010년도부터 드디어 제자반을 시작했다.

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 목사를 이끌어 주셨고, 이끌어 주신 곳에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그리고 전통 교회에 대한 이해를 묵묵히 체득할 수 있게 하셨다. 광야와 같은 훈련 과정을 겪은 후, 그는 2008년 8월 셋째 주에 능곡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다시 세우다

천 목사는 부임 당시의 능곡중앙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 곳곳에서 많은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 2대 목사가 원로목사로 있고, 3대 목사가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떠났다. 그리고 4대 목사에 이르러 제자훈련을 도입했는데, 3년 만에 사임을 했다. 그리고 5대 목사로 부임한 분은 교회 분란으로 8개월 만에 사임했고, 이후 천 목사가 부임한 것이다.

당시 그는 교회가 웃음이 없었고, 교인들이 나뉘어 있었으며, 양육 프로그램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거 상황을 떠올렸다. 그래서 천 목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능곡중앙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새

가족반을 인도했다. 새가족반을 인도하면서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품으려고 노력했다. 최대한 담임목사의 눈높이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하게 다가서려고 했고, 새가족을 직접 챙기고 돌보면서 교회가 따뜻한 곳임을 기존 성도들에게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새가족반이 정착하자 천 목사는 2009년 양육반을 시작했다. 능곡중앙교회 양육반은 교리 과정을 일컫는 말로, 현재도 학기별로 진행되는 양육 과정 중 하나다. 새가족반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면, 양육반에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이후 2010년부터 드디어 제자반을 시작했다. 사실 이 같은 '새가족반 - 양육반 - 제자반'이라는 큰 틀은 천 목사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화평교회의 양육 체계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능곡중앙교회 상황에 맞춰 천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능곡중앙교회만의 색깔을 입히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친구약 파노라마, 큐티학교, 기도학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 천 목사는 무너져 있던 양육 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능곡중앙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제자훈련

천 목사는 제자훈련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제자훈련을 ‘작은 예수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라 설명하며,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능곡중앙교회만의 제자훈련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작은 예수, 소예수의 삶, 그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그가 이 같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된 데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역했던 화평교회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천 목사는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의 사역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훈련된 평신도들이 가정교회 소그룹 지도자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신학생 시절부터 말로만 듣던 제자훈련의 목회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천 목사는 화평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 제자훈련과는 거리가 있었던 교회에서 섬겼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어려운 분이며, 만나기 힘든 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화평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무너졌다. 목회자는 결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며, 제자훈련을 통해 얻는 삶의 변화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중직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뚝뚝 깊이 느끼게 됐다.

이런 목회 현장을 부교역자 시절에 경험했기에 천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제자훈련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한다. 천 목사에게 누군가가 제자훈련이 목회 방법론이고 성장학의 한 부분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목회 방법론, 성장학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천 목사에게 제자훈련은 목회의 중심이자 본질이다. CAL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의 정신을 육한흠 목사에게 배우고, 최상태 목사를 통해서 제자훈련 현장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 천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자로 나아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의 현장 속으로

작은 예수가 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천 목사는 능곡중앙교회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다. 무너진 커리큘럼을 세우고, 제자반을 다시 도입해, 남자반·여자반을 먼저 시작했으며, 직장인반을 주일 오후에 운영했다. 현재까지 능곡중앙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한 제자는 총 79명에 이른다.

부임 전 마상구 목사를 통해 훈련받은 1기, 2기, 그리고 수료자 명단이 없는 3기를 제외하고, 천 목사 부임 후 4기부터 8기까지 수료했는데, 전체 출석 교인이 약 300명임을 감안하면 30퍼센트에 이르는 동역자를 제자훈련을 통해 세운 것이다. 천 목사는 이를 통해 스스로도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다고 한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전통 교회에서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교인들의 지원이 많지 않아 고민한다. 능곡중앙교회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소수로 시작한 숫자가 8기에 이르다 보니, 전체 교인의 30퍼센트를 평신도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1년에 몇 명이 제자훈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제자훈련을 통한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능곡중앙교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남자반·여자반을 운영하지 않고, 수요직장인반만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직장인 부부들이 함께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성별을 나눠 하는 것과 달리, 능곡중앙교회는 직장인 부부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다. 천 목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훈련과 가정교회가 함께 뿌리내려 있다 보니, 오히려 제자반을 하면서 허심탄화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가정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도 유익이 됩니다.”

부부제자반은 부부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 수요직장인반을 운영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제자반을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바라며, 초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가정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또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가정들이 마음 편히 가정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갱신하는 방법들을 고안 중이라고 한다.

사실 가정교회 역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천 목사는 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름만 있고, 모임이 안 되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천 목사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자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를 줬다고 한다.

가정교회를 세울 때 신청서를 받아 목자를 선택하게 했더니, 성별, 부부 중심, 나이에 맞춰져 목자와 부목자가 원활한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통 교회가 갖고 있던 체질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 점은 능



이처럼 능곡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은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천 목사 역시 화평교회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을 부교역자 시절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교회의 비전에도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 정도로 능곡중앙교회는 철저하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훈련된 평신도지도자를 가정교회 사역자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교회다. 천 목사가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통 교회는 주로 구역 위주로 목회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구역으로 모이다 보면 남자들은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만 낮 시간에 모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 깨지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는 가족 모두가 온전히 모이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사모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천 목사는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곡중앙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는 사역과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 가는 천 목사의 노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개선돼 왔고, 이런 노력이 변화를 싫어하는 전통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데 큰 작용을 했다.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묵묵히 한 길을 가며 한 사람을 위한 목회 철학이 전통 교회에 뿌리 박혀 있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앞으로도 능곡중앙교회가 계속해서 평신도를 깨워 동역자로 삼는 제자훈련 철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사소함과 평범함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의 좋은 점은 알지만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면 겁부터 낸다. 많은 과제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등의 노력이 없으면 제자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능곡중앙교회도 이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거창함보다는 사소함 속에서, 특별하기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능곡중앙교회만의 제자훈련 동기부여 방법이었다. 천 목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료자를 통한 권면이다.

수료자들의 간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이 주는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다. 특별히 수료식에서 간증을 한다거나, 주보에 간증을 실어 일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한다.

또한 천 목사는 제자훈련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 중 자원봉사(volunteer) 문화가 약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직접 교인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앞서 능곡중앙교회는 부부제자반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부부제자반에서 훈련받는 젊은 부부의 경우,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아기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문제도 직접 만나 보니 알게 된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시터의 필요성을 느낀 천 목사의 사모가 베이비시터를 직접 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안수집사 한 가정, 대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이 베이비시터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결국 직접 만나서 모든 사람이 제자훈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제자훈련을 독려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능곡중앙교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천 목사는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기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통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경우 모인 그룹의



천 목사는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기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질을 지켜가면서 참석자들의 기질을 맞춰 주는 노력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성향과 기질이 참 많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지켜가면서 참석자들의 기질을 맞춰 주는 노력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천 목사의 노력에서 드러나듯이 제자훈련을 전통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련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그러나 훈련 자체의 강도가 아닌, 접근 자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능곡중앙교회가 시도하는 노력들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훈련의 결과는 변화, 훈련 앞에서 장사 없다

능곡중앙교회에서는 올해 제자훈련 9기가 시행된다. 천 목사에게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질문과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자반 훈련생 중 고등학생 불교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내 되는 성도가 먼저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후 천 목사가 교회 등록 심방을 했다. 남편은 작은방에 숨어서 천 목사가 집에 와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천 목사의 눈을 사로 잡은 것은 반야심경 목판이었다. 천 목사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있는 이임을 직감했다.

심방을 마무리하고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등록했다. 결국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다 보니, 남편도 등



록하게 됐고, 남편은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칠 수 있었다. 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고 한다. 독실한 불교 신자가 주님의 제자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이분은 제자훈련을 통해 가정교회 부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제자반을 끝낸 후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한다.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 ‘훈련 앞에 장사 없다’, ‘주님 말씀 앞에서 거칠 것이 없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자훈련, 성도들에게 묻다

능곡중앙교회의 성도들이 갖는 제자훈련과 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중 한 자매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후 교회와 등지고 살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다시 교회로 오게 된 자매였다.

자매는 첫째 아이 출산 후 혼자 힘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댁 동네 여러 교회를 다녀 보다, 홈페이지를 통해 능곡중앙교회를 알게 됐고, 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한다. 자매에게 능곡중앙교회의 특별한 점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저희 능곡중앙교회는 거목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양육받은 후,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거목 양성’이란 능곡중앙교회 5대 비전 중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 가는 능곡중앙교회의 양육프로그램의 명칭이다. 이 자매는 30년 넘게 교회는 출석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능곡중앙교회의 새가족반, 양육반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학교’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제자반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교회의 위치나, 젊은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많은 구성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신자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따뜻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자매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자훈련이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고백이었다. 자매는 제자반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자훈련 3권 12과에서 배운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또 십자가 사랑은 머리가 아닌, 회개와 눈물, 그리고 확신으로 이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았다.

또 다른 이에게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물었다. 이분은 현재 가정교회 목자로 사역하시는 분으로, 새가족반, 양육반의 과정을 마친 후 더 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신청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심적 부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의욕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제자반 과정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니 부담감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그에게 제자훈련에 대해 물었더니, ‘제자훈련은 형광펜이다’라는 독특한 대답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물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중요한 내용에 형광펜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자훈련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정립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제자훈련은 나침반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이정표도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능곡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은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능곡중앙교회가 48년 만에 인도에
박쉬파라 중앙교회를 7월에 세우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계획을 추진했던 부서가 당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1청년부(사랑나눔청년)에서 자발적으로 해외 교회를
세우고 싶어 청년들 스스로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다.

목표를 정립해 줬고, 방향을 제시해 줬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과정임을 성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 철학의 계승

전통 교회이면서도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무장돼,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 가는 중형 교회가 지금까지 살펴본 능곡중앙교회의 현주소였다. 천 목사에게 향후 제자훈련의 방향과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한결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제자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목회를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특별한 것이 있다는 질문에 그저 묵묵히 한 사람을 세워 가는 목회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대답에서 그가 얼마나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 가고 싶은지 잘 알 수 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이 천 목사의 심장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는 이를 위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정도를 걷는 것을 원했다.

또한 그에게 앞으로 능곡중앙교회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능곡중앙교회가 48년 만에 해외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인도에 박쉬파라 중앙교회를 7월에 세우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해외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부서가 당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1청년부(사랑나눔청년)에서 자발적으로 해외 교회를 세우고 싶어 청년들 스스로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자금을 교회 설립을 위해 헌금하는 등 청년들의 헌신적인 행동에 어른들도 동참해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한다. 이 또한 평신도를 깨워 동역자로 세우겠다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이 있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뤄 낸 능곡중앙교회의 간증거리이다.

뿐만 아니라, 천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열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 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전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며, 50주년이 되면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 앞서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국내에도 50주년 기념 교회를 설립하는 꿈도 동역자들과 함께 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능곡중앙교회는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건강한 중형 교회의 모델로서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꽃피우게 한 목회자의 열정,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지도자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천 목사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능곡중앙교회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기대된다.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5대 비전(예배부흥, 거룩양성, 세계선교, 가정교회, 이웃사랑)을 통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계승해 가는 능곡중앙교회의 앞날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조철민 강도사>